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7)

무더운 고국과는 달리 태풍의 영향인지 매일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서 그다지 덥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 월 9 일에 주의 은혜로 인천 보합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10 년이 넘게 해외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오던 중에 올해 초에 저희 가정을 파송선교사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파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고, 보합교회와 여러 후원 교회들의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파송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세미나를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셔서- 저희 부부가 세미나를 잘하는지 검증도 안된 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주간 동안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내 김미경 선교사가 6 월 13 일에 2016 년 9 월에 신장암 수술을 받았던 서울성모병원에서 3 차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수술했던 오른쪽 신장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수술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내 환희는 오늘 7 월 8 일부터 19 일까지 GMS 본부가 주최하는 MK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재밌고 신나는 시간들, 많은 도전을 받고 오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도편지를 드린 후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고 기도제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동서선교연구소(EWC) 사역- 6 월 16~20 일에 2 차 방글라데시 선교컨퍼런스가 다카에 있는



Gazipur 장로교회센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박기호 교수님을 비롯한 강사 세 분을 보내서 Live the Mission 교재를 가지고 전체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4 가정과 2 명이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10 명의 헌신자들에 대해 그들의 상황에 맞는 훈련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 월 9 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에 치앙마이중앙교회에서 교우들을 대상으로 선교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Live the Mission 선교강좌를 개최합니다.

2. 지난 5 월 17 일에 도이사켓에 있는 썸상교회 예배당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위의 사진 참조). 시성교회(백춘기목사 시무)가 후원하여 지난 2 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두 교회가 기도와 후원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썸상교회 교역자와 온 교우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기술자들을 보내서 직접 건축 일들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근처에 있는 기술대학 학생들과 주민들을 전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졌네요! 뜨겁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3. 저희 아이들 소식입니다. 큰아이 건희가 5 월 18 일에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대학



화공과를 졸업했습니다. 동역자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2016 년 2 월 군복무 중에 있었던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복학하여 드디어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당분간 미국에서 취업하여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직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상희는 겐트대학을 휴학한 후에 치앙마이에서 의류사업을 시작하여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학기를 목표로 학교에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막내 환희가 올해 GMS 본부가 주최하는 MK 수련회(7/8~19)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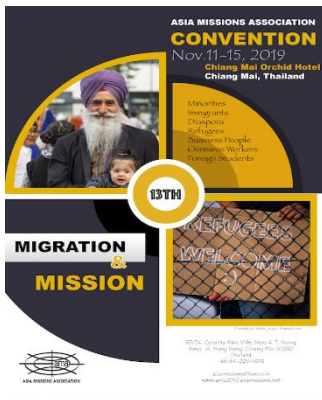
한국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으로 신나고 재밌는 시간이 되고,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듬뿍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보합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리면서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세미나를 인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6/3~7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여 10시까지 저와 아내가 번갈아 가며 신약 전체를 강의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12과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숨가쁘게 강의를 했는데도 마지막날까지 모든 분들이 잘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아시아교회 선교운동과 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아시아교회가 '받는 교회'가 아닌 '주는 교회'로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아시아에 가장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서구선교사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아시아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해 가야할 때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교운동이 아시아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태국 교회가 부흥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EWC 사무실에서 아시아선교협의회(Asia Missions Association) 13 차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1~15일까지 치앙마이에서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이 대회를 위해서 태국 CCT 교단 1 노회와 협약을 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아시아선교운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80여명의 강사들, 전체 일정 준비와 진행, 대회 참가자들, 재정 등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을 위한 지원사역 - 1) 퍼스전도사님이 사역하는 메빠파이교회 어린이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말에 마을 아이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며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께자매님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 빠이에 있는 뽕사교회 개척을 위해서, 뽕탁교회 예배당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뽕사교회는

‘콘므앙’이라고 불리는 북부타이족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니폰전도사님 부부가 사역자로 개척에 참여하고 있고, 뽕사초등학교의 교사인 관형제가 돕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수원제삼교회(강진호목사 시무)가 뽕사교회와 뽕탁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동시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정한 기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시작된 뽕사교회가 성경과 믿음 위에 튼튼한 기초를 세워 갈 수 있도록, 마을에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동역자들인 차이차나교회와 보이전도사님 가정, 썸상교회와 풍푸라이전도사님 가정, 뽕끌라교회와 빠이전도사님 가정, 쿤후웨이드아교회와 티안차이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4) 7/27~29 에 대구 성명교회가 뽕사마을을 방문하여 뽕탁, 뽕사, 쿤후웨이드아 교회와 함께 단기사역을 합니다. 그 지역 전도에 큰 도움이 되고, 단기팀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8/27 에 뽕탁교회와 뽕사교회 헌당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 건희가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 상희의 새로운 학업 준비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기를 위해서 / EWC 사역에 잘 적응하여 피차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무더운 날씨에 힘든 시기에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싱그러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태국에서 임중식/김미경(건희, 상희, 환희) 드립니다.